



태극전사 23인이 달린다

6일(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캠프인 루스텐버그에 도착한 태극전사들이 훈련장인 올림피아파크구장에서 가볍게 달리기를 하며 첫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정 16강 꼭 해낸다”

월드컵 대표팀 남아공 입성 첫 훈련



D-4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개최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성, 대회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을 향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18면>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스트리아에서 10여일간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지난 5일(한국시각)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도착, 버스로 두시간 거리의 베이 스텍프인 루스텐버그로 이동했다.  
대표팀 소속인 헨터스레스트에 여장을 풀 선수들은 휴식을 취한 뒤 올림피아파크 훈련장에서 1시간 10분 정도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스트레칭과 러닝에 이어 볼 감각을 끌어

올리기 위한 패스 연습과 운동장을 가볍게 뛰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훈련에는 왼쪽 팔꿈치가 빠져 우려를 낳았던 박주영(AS모나코)과 오른쪽 허벅지 안쪽 통증 탓에 지난 4일 스페인과 평가전에 결장했던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태극전사 23명 전원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9일까지 자체 일정을 마치고 나서 그리스와 본선 조별리그 1차전(12일 오후 8시30분)을 위해 10일 오전 포트엘리자베스로 이동한다.  
허정무 감독은 “선수들의 기분이 좋은 상태다. 본선 마당에 첫 걸음을 디딘 만큼 한국의 발사대를 남기려는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16강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서승원기자 swseo@

## 영산강 살리기 사업 수정 불가피

광주·전남 민주 새 단체장들 4대강 반대 당론 속 MB식 개발 제동

6·2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한 민주당이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과 함께 4대 강 사업 중단을 최우선 목표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영산강을 낀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영산강 수질개선과 홍수 예방, 환경 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4대 강 사업 반대’가 민주당 ‘당론’인 만큼 앞으로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사업과의 분리 대응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도내에서는 영산강 10개 공구에서 오는 2012년 마무리를 목표로 3조3634억 원이 투입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자체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담

양·나주·함평·무안·영암·목포 등 모두 6개 지자체다. 이번 선거에서 6개 지자체 가운데 나주와 함평, 담양군을 제외한 3개 지자체의 차기 시장·군수는 현역이 당선됐으며, 당선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정부의 4대 강 사업에는 반대하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보 건설과 준설사업만이 아닌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환경 정비 등의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기존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일부가 차질을 빚거나 사업 수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처럼 보를 막고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준설을 하는 정부의 4대 강 사업에는 반대

한다”면서 “영산강 사업 등 4대 강 사업은 선(先) 수질개선, 후(後)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정부의 4대 강 사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강 당선자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이 아닌 사업 수정·보완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광주시의 생활하수인 만큼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하수관거 시설을 늘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이 우선 필요하다”며 “4대 강 사업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쓰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4대 강 사업 추진에 앞서 2004년 선거에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공 영산강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던 박준영 전남지사도 “3선” 성공 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 측은 이날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그동안 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영산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앞서 추진해 온 박 지사의 공약사업이었다”면서 “민주당이 ‘4대 강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4대 강 사업과 분리해 영산강은 친환경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전략적 대응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와 나주시·함평·영암군 등 영산강 인근 자치단체장 당선자들도 “큰 틀에서 4대 강 사업에는 반대하지만,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민주당의 ‘4대 강 사업 반대’에 밀려 완전 무산되는 것보다는 수질개선 우선 및 수해예방, 친환경 정비 등의 사업으로 보완·수정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로호 발사 D-2

## 오늘 발사대 세워진다

내일 최종 리허설... 발사 당일 비 '변수'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발사를 이틀 앞 둔 7일, 발사대에 장착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7일 나로호(KSLV-1)를 발사대로 이송해 장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7일 오전 8시15분 무인동차에 실려 조립동을 출발하는 나로호는 1시간 30분만에 걸쳐 발사대까지 이송된다. 항우연은 나로호에 각종 기계와 전기적 케이블을 연결한 후 발사체 기립을 시작, 오후 4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추진제 주입장치의 연결을 완료하고 나로호의 방위각 측정을 통해 기립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 후 오후 9시까지 나로호와 발사대 간 각종 연결장치와 탑재 장비의 점검을 마무리하게 된다.  
발사 하루 전인 8일에는 최종 모의

연습(리허설)을 실시한 후 기상조건이 만족된다면 9일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나로호의 2차 발사시각은 9일 오후 4시30분~6시40분 사이다. 이 시간대가 인공위성이 태양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최종 발사시각은 발사 당일 기상 상황과 우주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물체와의 충돌 예방까지 고려해 발사 당일 확정되며, 현재로서는 1차 발사 때처럼 오후 5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날씨로 인해 발사가 연기되는 변수도 예상된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나로호 인근의 경우 발사 다음 날 비가 예고되어 있을 뿐 발사 당일에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

고 있지만, 비가 하루 일찍 내릴 경우 나로호 발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발사 다음날 비 소식이 있지만 발사 당일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날씨가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발사 전까지 기상 전망을 잘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